

언어학에 있어서의 자료

조 병 태

1.1. 언어학이 獨自的 학문으로서 확고한 토대를 잡은 20世紀 이후, 언어理論을 追求함은 필수적 욕구일 것이다. 20世紀의 언어학은 Ferdinand de Saussure(1857~1913)의 理論에서 출발되었다해도 不當하지는 않을 것이다. Saussure는 그의 사후 저술인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1916)에서 ‘言語는 개념을 표시하는 記號의 體系이다’라고 규정한 후, 記號, 言語活動, 言語(素材) 및 言語行爲 등의 개념을 논하며 언어특성 문제를 논술하였고, 언어연구를 共時的 연구와 通時的 연구로 나누고, 前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 언어는 體系를 가지며, 各部分은 全體 안에서 서로 依存하면서 機能한다는 그의 構造的 견해를 밝혔으며, 言語의 表現構成에는 結合的 關係와 系列的 關係가 있음을 논술하였다. 이 중에서 Saussure가 제시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社會的 抽象的 단위인 言語(素材)(*language*, F. *langue*)와 個人的 具體的 단위인 言語行爲(*speech*, F. *parole*)로 구분한 점과 言語를 가로(橫)와 세로(從)의 關係로 분석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今世紀의 언어연구의 主流가 形式重視主義(formalism)에 근거를 두고 있다. 언어가 지닌 兩面은 言語素材(*language*)와 言語行爲(*speech*), 또는 形式(form)과 實質(substance) 또는 言語能力(competence)와 言語運用(performance)이라는 對立概念으로 파악되는 바, 연구대상으로서의 우선권은 주로 前者의 분야에 부여되어 왔다. 이런 연구방식은 언어에 의한 現實의 전달행위에는 心理的·生理的 측면이 포함되었으나, 이런 측면은 언어에 附着되는 副次的인 것으로서 이를 捨象하여 言語活動의 깊숙한 곳에 존재하여 言語活動을 可能하게 하는 自律的인 言語形式, 構成내지는 體系를 파악함으로써 언어의 본질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1.2. 한편 言語運用(performance)의 관점에서 언어를 연구하는 방식은 언어연구의 交流이겠지마는, 전적으로 폐기되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다시 好意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경향마저 있다. 이 연구방식은 수집된 언어 資料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 자료는 수집당시에 실지로 사용되고 있는 언어의 實例가 수합된 것으로 規定되며, 언어 연구자가 關心을 갖고 있는 언어의 諸

相을 표시해주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겠다.

本稿는 ‘言語學에 있어서의 資料’를 취급하므로 言語運用에 관련된 문제를 주로 다루게 되겠으며 필자의 연구대상이 영어학이므로 열거될 資料가 대부분 영어임을 양해하여 주기 바란다.

言語運用에 바탕을 둔, 즉 資料를 근거로 한 언어연구의 성과로는 18世紀 이후의 사전 편찬가들(lexicographers)의 업적을 열거할 수 있다. 실지로 사용되고 있는 언어사실을 수집·기록·분류(및 인쇄·출판)하여 이 자료를 다른 참조자들에게 이용·습득하게 하였다. 사전편찬 방식에도 規範的(prescriptive) 방식과 記述的(descriptive) 방식으로 大別할 수 있을 것이다.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는 (1884~1928)에 걸쳐 完成된 후 1933년에 補遺 1권이 첨가된 13卷으로 된 英國系 사전으로 그 名聲을 떨쳐오다가 1972年 以來 새로운 補遺를 4卷 예정으로 編集·刊行하여 未久에 完結예정인 바 이 大辭典은 單語·成句의 역사를 연구하고자 하는 이에게는 고찰할 無限의 資料를 제공해준다. 한편 미국系 대표적 사전으로는 Webster 사전이 있다. 1909년에 William T. Harris에 의한 *Webster's New International*이 발간되었는데, 이 사전이 現行의 통칭 「Webster 3版」의 初版이다. 이 Webster¹의 1923년의 版을 개정증보한 판이 1934년에 나왔는데 이것이 William A. Neilson, *Webster's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Second Edition, Unabridged*이며, 통칭 Webster²이다.

이 Webster²를 약 30년의 세월과 350만분의 비용을 투입하여 改訂한 것이 Philip B. Gove,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Unabridged*(1961)이며 Webster³의 통칭으로 호칭된다. Webster²가 규범적 성격이 강한 데 비하여, 1950年代에 풍미한 構造言語學을 배경삼은 Webster³은 ‘사전이란 언어의 現實을 그대로 記述할 것이며, 言語用法에 指示의 성격을 풍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1. 3. 言語運用에 근거를 둔 영어 연구의 또다른 성과는 방대한 分量으로 된 英文法書의 저작들이 있다. 그 대표적 저술로는 (1) Hendrik Poutsma, *A Grammar of Late Modern English*, 5 vols(1904~1926), (2) Otto Jespersen, *A Modern English Grammar on Historical Principles*, 7 vols (1909~1949), (3) F.T. Visser, *An Historical Syntax of the English Language*, 4 vols (1963~1973), (4) Quirk, Greenbaum, Leech, & Svartvik, *A Grammar of Contemporary English*(1972)와 (5) Randolph Quirk, et al.,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1985) 등을 열거할 수 있다. 이 중에서 (4)와 (5)는 각각 1120페이지와 1779페이지의 分量인 바, Randolph Quirk

교수가 主導한 영국 London대학교에서 실시한 The Survey of English Usage (現代英語 語法調査)의 소산의 結實이라 할 수 있다. ‘現代英語 語法調査’는 1960年이래 London대학교에서 R. Quirk교수의 主導下에 행하여져 온 英語語法の 實地調査이다. 이 語法調査의 결과 얻어진 資料에서 상기 열거한 (4), (5)의 英文法書외에도 수 많은 연구논문이 속출하였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Quirk(1968) ‘The Survey of English Usage’(*Essays on the English language: Medieval and Modern*에 수록)와 Quirk(1974) ‘Our knowledge of English’(*The linguist and the English language*에 수록), 또한 Quirk, R. & J. Svartvik(1979) ‘A Corpus of Modern English’, D. Crystal(1966)의 ‘Specification and English Tenses’를 열거할 수 있겠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個別的 논문이 이 語法調査를 바탕으로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더구나 ‘現代英語 語法調査’중의 口頭音聲部分(the oral part)이 방금 電算處理되어 分析준비가 거의 完了되어가고 있다. 이 작업은 Sweden의 Lund 대학교 교수인 Jan Svartvik 주도하에 행하여져 왔으며 최근의 업적으로는 H. Carvell와 共著인 (1969)의 ‘Computational Experiments in Grammatical Classification’과 R. Quirk와의 共著인 (1980)의 ‘A Corpus of English Conversation’ 등이 있으며 音聲英語 表現의 電算處理化에 각별히 노력하고 있다.¹

여기서 지적하고자 함은 대부분의 언어학의 저술에서는 音聲言語를 文字言語보다 優先시키는 경향이 있고, 前者를 一次的 言語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本來 比較될 수 없는 것을 比較하는 일이란 사실이다. 그 이유는 兩者는 각기 別個의 機能을 가지고 있으며, 한 쪽을 다른 쪽으로 代替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見解는 Mathesius(1975: 15)에서 表明되어 있다.

In this connection it is necessary to add a remark concerning the dichotomy ‘spoken utterance—written utterance’. Bopp and most of the other early linguists studied only written material, whereas modern dialectology is in turn concerned only with speech. At present, however, it is admitted that a written utterance is a form of language *sui generis* just as a spoken utterance, each having its specific function.

¹ London대학교의 ‘現代英語 語法調査’중의 音聲言語부분을 韻律特徵(prosodic features)을 포함하여 轉寫한 資料로는 Crystal & Davy, *Advanced Conversational English*(1975)가 있으며, 이를 쉽게 入手할 수 있다. 또한 Svartvik & Quirk, *A Corpus of English Conversation*(1980)은 London대학교의 Survey와 Sweden의 Lund 대학교의 Survey of Spoken English의 연구진이 共同으로 완성한 900페이지에 가까운 資料로 口語體 영어의 文法的·文體的·社會言語學的 관찰에 필수적 문헌이다.

音聲言語와 文字言語가 각기 지닌 機能을 파악하는 일이 또한 중요하다.

2.1. '現代英語 語法調查'로 인하여 20세기 後半의 영어학 연구에 큰 進展을 이룬 점은 누구나 認定할 것이다. 이제 이 語法調查의 基本원칙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여기에 Quirk교수의 논문(1968)의 일부분을 인용하겠으니 참고하기 바란다.²

Thre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Survey's method in compiling a Descriptive Register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primary material will be *all* the grammatical data in selected continuous stretches of actual recorded (spoken and written) English. As already noted, for previous grammars (and for some structural studies), examples have often been assembled eclectically, a slip being made out by the grammarian when he came across an expression which happened to illustrate a required point or even which simply struck him as unusual. The Survey aims at viewing each grammatical feature, be it commonplace or rare, in the light of a statistical norm and at explaining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users of the language depart from that norm.
2. The Survey attempts to embrace the whole range of educated English usage, from learned and technical writing to the most spontaneous colloquial English. Special attention will be paid to the usage of natural speech, (that is, unprepared talk, with no written original) in its chief educated varieties ranging from learned discussion to informal conversation between friends.
3. The Survey is concerned only with present-day English,... For our purposes, 'present-day' will be taken to mean 'since 1950'.

2.2. 앞서 지적한 言語運用に 근거를 둔 英文法書 가운데에서 (1), (2), (3) 등은 광범위하고도 철저한 例證 등으로 앞으로도 좀체로 필적하거나 능가할 만한 文法書를 기대할 수 없겠으나, 두가지 이유로 인해서 학술적 저술로 期待以下라고 Quirk교수는 평가하였다. 첫째 이유는 在來 文法學者들은 言語資料를 취사선택식으로 취급한 결과 正常 構造와 비교적 非正常 構造의 구분을 명확히 짓지 못한 적이 너무 많았고, 非正常 構造를 택한 場面이나

² Quirk, R.(1968) 'The Survey of English Usage,' *Essays in the English Language, Medieval and Modern*, Longman, London.

文脈을 명백히 제시치 못하였다는 사실을 든다. 둘째 이유로는 音聲言語의 기록 장치가 최근까지 불충분했던 탓으로 실제로 발음된 口頭영어 표현의 형태와 특성을 在來의 文法書가 거의 밝히지 못하여 音聲言語의 취급이 극히 소홀했다는 점이다.

Quirk교수의 主導下에 이뤄진 ‘現代英語 語法調查’나 그 소산의 저술인 英文法書인 (4)와 (5)는 在來 영문법의 이런 결점을 補完한 보다 進一步한 학문적 업적이란 주장이다.

2.3. 現代英語의 資料를 취급하고 이를 또 하나로 集大成한 the Brown University Standard Corpus of Present-Day American English가 있다. 약칭인 the Brown Corpus로 더 알려져 있는데 1960년대부터 널리 이용되고 있다. F. Twaddle교수의 發想으로 시작되어 Francis교수 등의 主導下에 1963年에서 64年 사이에 電算化되어 편찬을 완료했다. 이 資料를 이용해서 몇개의 연구업적이 세상에 빛을 보게되었다. 즉 영어 어휘의 사용빈도 순위表며, 또 문장 길이나 어휘分布 등의 특수연구 등이 포함된 책자가 出刊되었다. 어휘, 構文, 形態 및 綴字상의 연구도 현재 계획중이며, 이 Brown 資料는 言語學者뿐만 아니라 心理學者, 哲學者, 文體論者 및 기타 전문가들에 의하여 利用되고 있다. 어휘빈도수에 관한 연구로 Thorndike-Lorge 등의 오래된 연구를 능가대치하게 되었다. 構文 및 意味論의 관계 資料로는 미진한 곳이 많아서 보다 有益하게 利用될 수 있도록 改正작업이 進行중이라고 한다. 이 Brown 資料는 당시 사용한 電算器材의 제약 등으로 百萬개의 어휘로 제한하여 進산 처리한 결과로 現代英語의 여러 變異形이나 言語使用域을 고루 충분히 대변하기에는 不充分한 결점을 안고 있으며, 세 가지 중요한 제약을 지닌 채 계획되었다고 Francis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³

The three major limitations were the following:

- 1 The type of English to be sampled was *edited prose*—by which is meant prose prepared for print and actually printed. Thus not only are all varieties of spoken English excluded, but many varieties of written as well.
- 2 The samples were to be, so far as it was possible to determine, *American* English. All samples were first printed in the United States, and all authors who could be identified were native speakers of American

³ Francis, W. (1980) ‘A Tagged Corpus—Problems and Prospects,’ in S.D. Greenbaum, G. Leech, and J. Svartvik, eds., *Studies in English Linguistics*, Longman, London.

English.

- 3 It was felt desirable for the language sampled to be as far as possible **contemporary**. Accordingly it was limited to material first printed in the calendar year 1961....It is safe to say that the Corpus is truly representative of middle twentieth-century American English.

Francis 교수의 이 引用文과 앞서 제시한 London 대학교의 Quirk 교수 주관하에 실시한 ‘現代英語 語法調查’의 기본방침을 밝힌 引用文을 비교·검토하면 the Brown Corpus는 시초부터 制約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게 되고, 이런 制約때문에 이 資料에서 나오는 연구성적이 별로 신통치 않은 이유를 알 수 있겠다.

3.1. 현대의 언어연구에는 二大방식이 있다. 하나는 심리지향적(psychologically oriented) 연구방식이며 또다른 것은 사회지향적(socially oriented) 연구방식이다. 최근의 언어학 연구방식은 個個의 문제 및 사실에서 歸納하기 보다는 일반적 원칙에서 演繹하는 방식이 두드러지며, 특히 심리지향적 연구에서는 더욱 그렇다. 統一적 원리에의 追求, 보편적 특질을 탐구하는 一般文法理論의 탐구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Chomsky의 언어이론이 이런 연구방식에서 얻어진 대표적 예가 되겠다. 언어의 生成과정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 話者가 지닌 抽象적 언어능력의 형식 model 위주의 연구방식이며 language in abstraction이 연구의 기본대상이다.

한편 사회지향적 방식은 언어가 담당하는 역할 즉, 언어의 機能에 관심을 갖는다. 언어가 사회에서 담당하는 기능을 명백히 하고, 이런 기능이 言語構造에 어떻게 反映되는지를 밝히는 연구방식이며, Halliday 등의 機能的構文論이 대표적 예가 되겠으며, language in use가 연구의 기본대상이다.

3.2. 20세기 중반이후 언어이론의 변천이 현저하다. 소위 Post-Bloomfieldian 학파들의 구조언어학은 Noam Chomsky의 변형생성 이론에 의하여 代置되고, Chomsky 이론의 진진과 더불어 痕跡理論(trace theory), 核心文法, 變形不適用文法, 關係文法, 發話行爲文法, Montague 文法 및 拘束·支配文法理論(Binding & Government Grammar) 등으로 전개되어져 오고 있다. F.J. Newmeyer, *Linguistic Theory in America*(1980)에 언어이론의 변천 및 전개과정이 상술되어 있다. 언어이론의 추구는 화려하지마는 現代처럼 격렬하게 변화하는 시대의 연구상황에서 참으로 後世에 남을 연구는 무엇인지 알 길이 막연하다. 더욱이 연구대상 언어가 自國語가 아닌 경우에는 母國語 사용자의 언어적판력이 生得的으로 얻지 못하여 온전치 못한 이유로 인해서

난감할 때가 허다하다. 언어이론에 좌우되지 않는 것은 연구대상이 言語事實의 記述연구가 되겠다. 언어연구가 구체적 언어의 사실(facts)에 멈추지 않고 이런 資料를 지배하는 보다 추상적 이론을 추구함은 당연하다.

흔히 언어연구에 있어서 이론은 주가 되고, 자료수집 등은 從이 된다고들 생각하는데 자료의 뒷받침이 없는 이론은 砂上樓閣에 불과하다고 믿는다. 언어의 수 많은 자료에서 그 언어의 통합이론의 근본원칙을 찾아내는 일이 언어학자의 중요한 과업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言語연구에서의 이론(theory)을 몇몇 사람은 論理와 同義로 간주하고 있는 듯한 점이다. 자연언어를 지배하는 이론은 언제나 반드시 論理 그대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일반언어와 논리와의 관계를 한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 假定을 중심으로 자연언어와 논리간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條件命題인 'A이면 B이다' 즉 $A \supset B$ 에 대하여 'B가 아니면 A가 아니다.' 즉 $\neg B \supset \neg A$ 는 그 對偶(contraposition)이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어떤 命題와 그 對偶는 항상 同値임은 論理의 이치이다. 그러나 자연언어에서는 論理의 적용에 있어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가 있다. '어머니가 야단치지 않으면 아이는 공부를 하지 않는다'의 對偶는 '아이가 공부를 하면 어머니는 야단친다'가 되어서 이상하다. 즉 이 發言에서 나오는 對偶가 왜 原命題와 同値가 아닌 듯이 들리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日常會話에서 $A \supset B$ 이던 시간적으로 A는 B에 先行하는 경우가 많음을 유념해야 한다. '어머니가 야단치지 않으면 아이는 공부를 하지 않는다'에서 因果관계를 고려에 넣어서 그 對偶를 만들면 '아이가 공부를 하면, 그 以前에 어머니가 야단친 일이 있었다'가 된다.

이는 명백히 原命題의 眞理値와 同値이다. 논리적 표현은 시간에 추월하므로(tenseless), 이를 그대로 日常語의 發想에 해당시켜서, '아이가 공부를 하면 (그 후에?) 어머니가 야단친다'로 들어서 그렇게 인식하여 모순을 지닌 듯이 느껴지는 것이다. 따라서 論理상의 對偶와 日常言語의 그것과의 고찰에서는 時間의 前·後關係 등을 고려해야 함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3.3. 이제는 不合理한 語法(illogicality)에 관해서 몇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언어는 반드시 論理적·合理적 표현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불합리한 語法은 어떤 언어에도 있다. 영어에서 몇가지 例示하고자 한다.

- (1) a. I must thank him for his *valuable* information/help.
- b. I must thank him for his *invaluable* information/help.
- c. I spent a lot of money for *valueless* books.

문장(1b)에서 *invaluable*은 *valuable*의 反義語가 아니고 *valuable*과 同義語

‘임에 유념하기 바란다. polite~impolite, dispensable~indispensable, logical~illogical, noble~ignoble, regular~irregular의 쌍을 검토하면 valuable~invaluable 관계는 특수함을 감지할 것이다. 이와 유사한 쌍의 형용사의 예를 하나만 더 제시하겠다.

- (2) a. It was a *flammable* gas that was blamed for the big fire.
 b. It was an *inflammable* gas that was blamed for the big fire.
 c. The house was built of *nonflammable* materials.

문장(2b)와 (2c)의 inflammable와 nonflammable는 언뜻 보아서는 同義語인 듯 여겨지지만은 反義語이고 오히려 (2a)의 flammable과 (2b)의 inflammable은 同義語의 관계는 不合理한 語法으로 간주된다. radiant~irradiant, candescent~incandescent의 관계 역시 同義語관계임에 유념하기 바란다.

- (3) a. I have never seen him *out of temper* with anyone.
 b. She broke some dishes *in her temper*.

문장(3a)와 (3b)에서 이탤릭체 부분이 모두 ‘화나서’의 뜻이며, 후자의 temper는 irritation, anger의 뜻인 반면에 전자의 temper의 뜻은 composure임을 알아야 한다. temper의 兩義性과 관련하여 다음 문장(3c)와 (3d)를 검토하기 바란다.

- (3) c. I want a cloth that will *wear*.
 d. I want a cloth that will *not wear*.

언뜻 봐서는 서로 反義文인 듯 여겨지나 그렇지 않다. H. Bradley(1968²: 126)에서 이 쌍의 構文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란다.

The twofold meaning of the word may sometimes give rise to ambiguity. ‘A dress that is much worn’ may mean either a style of dress that is fashionable, or an individual garment that is the worse for wear. When the verb is used intransitively, it may even have quite contradictory senses. We may say ‘I want a cloth that will wear’, and ‘I want a cloth that will not wear’, the two statements meaning exactly the same thing.

이제는 어휘가 의미의 역사적 변천을 겪어서 不合理한 語法으로 전락된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 (4) The farmer carried lots of hay by a *taxed* cart.

taxed cart는 免稅貨物馬車를 의미한다. OED를 引用하면 아래와 같다.

A two-wheeled(orig. springless) open cart drawn by one horse, and used mainly for agricultural or trade purposes, on which was charged only a reduced duty (afterwards taken off entirely)

즉 처음에는 가벼운 稅金이 부과되었기 때문에 taxed cart로 명칭을 가졌으며, 後에 免稅의 혜택을 받았으나, 일단 주어진 명칭이 정해지면 명칭의 변경이 좀체로 행하여지지 않는 언어의 宿命의 탓으로 不合理한 명칭을 保全하게 된 것이다. 不合理한 語法은 否定構文의 表現에 많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몇 예를 제시하겠다.

(5) a. Home is home, be it *never* so humble.

b. She would not marry him, though he were *never* so wealthy.

成句 never so는 양보절내에서는 ever so, no matter how 등의 뜻이 되고, ever so보다 史的으로 더 오래된 형태이며, 不合理한 語法중의 하나이다.⁴ 현대영어에서는 ever so편이 더 자주 쓰인다.

(6) a. How often have I *not* heard him boasting of his skill in fishing.

b. How many times had she *not* sat there!—Galsworthy

c. Yet scanty as these facts are, what astonishing things do they *not* suggest!—Hearn

d. If you're a good boy and wash your teeth regular every morning without me telling you I shouldn't be surprised if Santa Claus *didn't bring* you a kite on Christmas Day.—Maugham

문장(5), (6)은 일종의 擬似否定文(quasi-negative sentence)으로서 'not' 등을 제외한 것과 同義가 된다. 否定要素(never, not) 등은 모두 虛辭的 요소로 사용되며, 문장(6)은 俗語의 표현에 많이 쓰인다. 문장(6d)에서 regular는 regularly로 without me telling~는 without my telling~으로 간주되고 didn't bring는 brought로 간주할 수 있음을 참고로 적어둔다.

(7) a. *I'll teach you to meddle in my affairs.*

⁴ 한국어와 영어의 표현의 차이가 ever/never에서 찾아보게 되는 構文이 있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한국이 1950년에 일찌기 겪은 적이 없는 중대한 危機에 직면하였다'를 영어로 옮기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In 1950 Korea faced the most serious crisis that she had $\left\{ \begin{array}{l} *never \\ ever \end{array} \right\}$ experienced in her history.

b. *I'll teach you to ignore my words.*

c. *When I catch that boy I'll teach him to tell lies about me.*

문장(7)에서의 *I'll teach you/him to inf-* 構文型은 口語體 표현으로 ‘~하면 용서 안 할 테다(공연히 ~하면 가만히 놔두지 않을 테야)’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 즉 *make you/him know the disagreeable consequences of some action* 정도로 풀이할 수 있겠다. 따라서 문장(7b)와 다음 문장인

(7) b'. *I'll teach you not to ignore my words.*

과는 同義文인 것이다. 그리고 문장(7)에서의 *teach* 構文에서 주어가 거의 언제나 제 1 인칭 I가 되겠으나, 주어가 無生物인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의 不定詞는 否定形입을 주지하기 바란다.

(7) d. *That will teach him not to interfere with my work.*

영어의 否定構文에서 *than, as* 등으로 인도되는 소위 從位節에 사용되는 *can help*는 의미상 *cannot help*의 뜻이 된다.

(8) a. *Don't tell him more than you can help.*

b. *Don't be longer there than you can help.*

先行節의 *not* 否定語로 인하여 從位節에서 *cannot help*로 하면 否定語의 중복을 회피하기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 또한 否定語 *not* 이외에 *little, few, hardly, rarely* 등의 擬似否定副詞의 경우도 역시 같은 현상을 보게 된다.

(8) c. *Sneeze as little as you can help.*

문장(8a)를 Hornby 편찬의 OALD³(1974: 407)에서는 *Don't tell him more than you must*로 풀이하고 있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4.1. 언어연구에서 지적하고 싶은 점은 文獻學(philology)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문헌학은 言語·文學 등에 표현되어 있는 한 民族의 고유의 정신생활의 참모습을 인식함을 목표로 하는 분야의 학문이다. 다시 말하면 ‘한 민족 또는 국민의 정신문화를 언어를 수단으로 삼아 역사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으로 우선 규정지을 수 있다.

문학의 언어를 문헌학의 중심으로 삼은 것은 문헌학의 역사적 흐름이었으며, ‘언어자체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언어학(linguistics)이 문헌학에서 독립하여 차차 對立하다가 그 자체의 完成된 과학으로 진전하게 된 것이다. philology와 linguistics는 사용하는 언어자료는 동일하여도 학문으로서 그 목표를 달리하는 점, 그러면서도 연구의 과정에서는 相補의 일 수 있는 점을

알 필요가 있겠다. 학문의 발달에서 말하면 後者는 前者에서 分化・獨立한 것으로 간주되며, philology와 linguistics는 목표를 달리하는 別個의, 對等의 학문이라 할 수 있겠다. 언어자료를 두고 두 학문이 利用하는 방식도 philology가 parole적 언어자료들, 즉 個別化된, 特定言語의 특색을 추구하는 반면에 linguistics쪽은 langue적 언어자료들, 즉 이상적 화자・청자간의 관계를 설정한 후, 一般化 지향의 理論體系의 완성을 목표삼는다고 할 수 있다. 前者가 언어자료에 대한 평가(critical evaluation)가 있는 반면에 後者에는 언어자료의 선택이 있을 뿐 그 평가는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4.2. 이제 본 논문의 결론을 지을 차례가 되겠다. 언어학에서의 자료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여러 학자들의 견해는 많겠으나, 크게 區別하면 귀납적 또는 연역적 방식이 되겠다. 전자의 방식이 과거의 전통적 연구방식이어서, 언어자료에서 歸納적으로 이론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후자의 방식은 이론을 먼저 정립한 후, 演繹적으로 자료를 수집・보강한 후, 이런 언어자료에서 이론의 정당성을 확인하게 된다. 이 경우 언어자료의 公正한 취급이 요망된다. 즉 反例가 나올 수 있을 것이며 反例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연역적 언어연구 방식에서 경계해야 할 점은 어떤 특정이론에 영합하기 위해서 언어자료를 자기 便益위주로 취급하게 되면, 그 연구의 科學性이 상실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抽象的인 일반 언어이론의 모색이 이론 언어학의 목표가 될 경우, 언어자료는 手段이며, 目的이 아님은 당연하다. 그러나 언어를 연구하는 사람에게 자료중심으로 연구하는 philology나 socially-oriented linguistics의 존재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자기 母國語가 아닌 外國語를 연구대상 언어로 삼는 연구자들은 항상 언어 직관력을 증대시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고 해당외국어 사용자의 언어 직관력의 도움을 청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끝으로 첨가할 사실은 우수한 언어자료를 바탕으로 할수록 훌륭한 理論을 설정하여 이를 體系化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언어 연구자는 따라서 자료로서 適合한 것인지 不適合한 것인지 식별할 예리한 능력을 갖추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Bradley, N., revised by S. Potter(1968²) *The Making of English*, Macmillan, London.
- Mathesius, V. (1975) *A Functional Analysis of Present Day English on a General Linguistic Basis*, Mouton, The Hague.

- Francis, W. (1980) 'A Tagged Corpus—Problems and Prospects,' in S. Greenbaum, G. Leech, and J. Svartvik, eds., *Studies in English Linguistics*, Longman, London.
- Quirk, R. (1968) *Essays in the English Language, Medieval and Modern*, Longman, London.
- Saussure, F. de (1916)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ayot, Paris.

ABSTRACT

Data in Linguistics

Byung Tae Cho

This paper deals with (a) interrelations between linguistic theories and linguistic materials in the research of linguistic science, (b) recent remarkable achievements in data collection of contemporary English, both in England and in America, especially, 'The Survey of English Usage' and 'The Brown Corpus,' (c) the evidence that logic and natural language are not necessarily consistent in the performance of language, (d) problems of some illogical, abnormal constructions in present-day English, taking into due consideration various examples defying logic, (e) the necessity of distinguishing philology from linguistics in the use of linguistic materials, and (f) the importance of a proper orientation of linguistic data, along with the desirability of impartial, judicious treatment of data on the part of linguists, in pursuit of linguistic theories.